

장관은 여성인데... 국토부 기관 '유리천장'

공기업 23곳 중 여성기관장 1곳

‘여성기관장’ 코레일유통 1곳뿐
전체 임원 225명 중 남성 92%
LH, 14명 중 3명 여성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여전히 ‘여성임원 가뭄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1곳에 불과하고,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도 7개에 달한다.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임원현황을 보면 국토부 산하 준정부기관·공공기관·공기업 23곳 중 여성 기관장이 있는 곳은 코레일유통(공공기관) 한 곳뿐이다. 이 외 공공기관 9개와 준정부기관 5개, 공기업 8개의 기관장은 모두 남성이다.

전체 임원 수로 따져보면 총 225명(공석 제외) 중 남성이 92%(207명)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임원은 8%(18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에스알,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7곳은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15명의 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한국건설관리공사도 10명에 달하는 임원이 모두 남성이다.

나머지 16곳의 여성 임원도 코레일유통 김은순 기관장 및 상임이사와 한국도지주택공사(LH) 장옥선 상임이사를 제외하면 모두 비상임이다.

LH는 임원 1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코레일유통도 임원 7명 중 2명이 여성인데, 김은순 기관장이 상임이사까지 겸하고 있어 직책으로만 따지면 여성이 세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따지면 여성 임원 비율은 더 낮아진다.

공공기관만 보면 총 10곳의 전체 임원 73명 중 5명만 여자로, 비율은 6.8%에 불

과하다. 공기업도 8곳의 전체 임원 97명 중 여성 임원이 9.30%(9명)뿐이다. 준정부기관 5곳도 전체 임원 55명 중 여성 임원은 4명으로 7.3%에 그친다. 기관 유형별로 여성 임원의 비율이 전체에서 10%를 못 넘는 셈이다.

이는 정부의 ‘여성 유리천장 해소’ 계획과도 동떨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을 2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14.3%까지 올라 목표치인 13.4%를 웃돌았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만 따지면 6.8%로 전체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의 반 토막도 채 안 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에서도 목표치를 채운 곳은 거의 없다. 코레일유통(28.6%), 한국도지주택공사(21.4%)만 20%를 넘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 23개 임원 현황〉

분류	기업기관명	기관장 성별	임원수(명)	
			남	여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남	12	2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남	11	1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석	8	1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남	10	0
공기업	한국감정원	남	10	1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공석	11	1
공기업	한국철도공사	남	15	0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남	11	3
공공기관	한국건설관리공사	남	10	0
공공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남	13	0
공공기관	에스알	남	5	0
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	남	5	0
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	남	7	1
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	남	6	0
공공기관	코레일로지스	남	5	0
공공기관	코레일유통	여	5	2
공공기관	코레일테크	남	5	1
공공기관	항공안전기술원	남	7	1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남	11	1
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남	11	1
준정부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남	9	1
준정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남	8	0
준정부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남	12	1
합계		1(4.8%)	207(92%)	18(8%)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정리=채신화 기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65곳 인증서 수여

노동부·인력공, ㈜하이브랩 등 신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19일 서울 엘타워에서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65개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노동자가 학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이 우수한 기업에게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를 포함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규인증 신청기관 중 최고점수를 받은 ㈜하이브랩(대표 서종혁)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하는 종합디지털 대행사로 동종업계 최초로 Best HRD 인증을 받았다.

㈜하이브랩은 ▲신규사원의 조기적응

을 돕는 ‘Hi-BEE’ 활동 ▲팀 내 코칭활동인 ‘Hi-TALK’ ▲조직 내 소통강화를 위한 ‘Hi-TOGETHER’ 활동 등 직원들의 업무 몰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휴대용 프린터 제작업체인 디에스글로벌(주)은 2010년 임직원 6명의 소기업으로 시작해 9년 만에 근로자수 271명, 연매출 117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디에스글로벌(주)은 성장의 비결을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사내 전문가 양성’으로 꼽으면서 CEO 경영독서, 리더십 특강, 연 64시간 교육이수제도 등 조직 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했다.

재인증을 받은 IT서비스 업체인 ㈜다우기술은 인사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전사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장을 장려한다.

학습 동호회와 독서모임, 사내 세미나, 신기술 연구 조직 등 다양한 사내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학습자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승진 포인트 제도를 통해 내부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우수한 인재가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고당도 신품종 국산 배 ‘신화·창조’ 첫 선

농진청, 올해 총 10.5톤 출하
추석 전 유통... ‘선물용’ 인기

올 추석에 선물하기 좋은 국산 배 품종이 첫 유통을 앞두고 있어 배 산업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19일 농진청이 개발한 ‘신화’와 ‘창조’ 품종을 추석 전에 유통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배 재배 면적의 86.8%가 ‘신고’ 품종이다. 일본 품종인 ‘신고’ 배는 원래 10월 상순에 출하되는데, 올해처럼 추석이 9월인 해에는 수확을 앞당기기 위해 생장조절제로 크기를 키워 출하해왔다.

이른 추석마다 크기만 키워 유통한 배를 먹고 맛에 실망한 소비자는 점차 구입을 꺼리게 됐고, 이는 배 산업 위축으로 이어졌다.



신품종 배 ‘신화’(왼쪽)와 ‘창조’.

농진청에서 개발한 배 ‘신화’와 ‘창조’는 9월 상순이나 중순에 출하할 수 있어 ‘신고’ 품종보다 빨리 유통할 수 있다. 두 품종 모두 당도가 13브릭스 정도로 높고 맛이 뛰어나다.

품종명은 이른 추석에 유통할 수 있으면서 품질도 뛰어나 기존 배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이로운 ‘신화를 창조하자’는 바람을 담아 지었다.

‘신화’ 품종은 평균 무게가 630g 정도로, 9월 상순(나주 기준 9월 5일~10일)에 수확된다. 특히, 추석 선물용 배는 모양도

중요한데 ‘신화’는 상품성 있는 열매 생산 비율이 높고 상온에서 30일 정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저장력도 좋다.

‘창조’ 품종은 평균 700g 이상의 큰 과일이다. 9월 중순(나주 기준 9월 10일~15일)에 수확하며, 껍질이 얇아 꺾어먹기 편하다. 큰 열매를 선호하는 명절에 선물하기 좋다.

올해 출하할 ‘신화’는 약 7.5톤(경기도 안성), ‘창조’는 약 3톤(전남 해남)으로 농협 하나로클럽, 서울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청과유통업체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황정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우리 배 ‘신화’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사례를 만들어 이를 기점으로 껍질째 먹는 배 등 기존 품종과는 맛과 기능성에서 차별화된 신품종들을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해양오염사고 초기 대응 ‘위험성 평가모델’ 구축

해양환경공단(KOEM)은 과거 해양오염사고 통계를 활용한 해양오염사고 초기 ‘위험성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선제적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과거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출량과 사고발생 당시 주변 요소들의 연관 관계를 밝힘으로써 사고선종, 사고선의 톤수, 발생시각 등 핵심위험요소를 선정하고, 핵심요소별 위험관계를 정량화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화된 핵심요소들을 사고발생 시 즉시 취합, 총점화 해 결과 값에 따른 방제자원의 동원규모, 대응방법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모델’을 구축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김천 5개 초교 앞에 ‘엘로카펫’ 설치

도로공, 교통사고 예방 활동

한국도로공사가 김천시 어린이 안전 통학 지킴이 ‘엘로카펫’을 설치한다.

도로공사는 김천 울곡초등학교에서 김천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엘로카펫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울곡·농소·운곡·김천서부·김천초등학교 앞 5개 초등학교 앞에 엘로카펫 설치를 지원했다.

엘로카펫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노란색 안전지대로, 쉽게 눈에 띄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고 감속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다. 올 8월 기준으로 전국 714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김천 시에는 이번이 처음 설치됐다. /채신화 기자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왼쪽)이 김창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장과 지난 18일 김천 울곡초등학교 정문에서 엘로카펫 완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오늘의 날씨

9월 20일(木)
음력 : 8월 11일

수도권 날씨
22~19℃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18 | 해질 / 18:33

연천 17/21

동두천 18/22

가평 16/20

파주 18/22

서울 19/22

양평 18/22

인천 19/23

수원 18/21

용인 18/21

평택 19/2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